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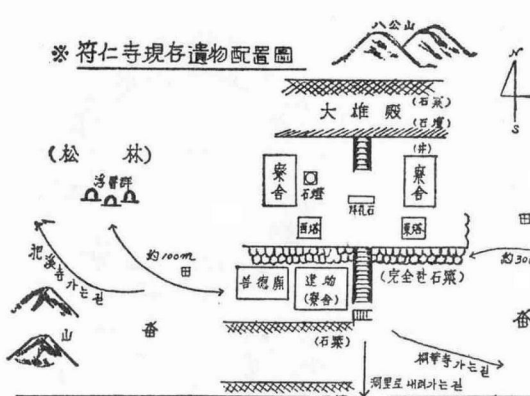
八公山符仁寺

鄭 永 鎬

大邱市 大新洞에서 公山面行 卽一스便으로 約一時間半 新武洞 部落에서 下車하여 徒步로 約五料 八公山을 向하여 山谷을 올라가면 符仁寺 境內에 다다른다.

符仁寺는 高麗의 大藏經이 安置되었다가 蒙古兵火로 燒失된 史實로서 有名한데 口傳에 依하면 다시 再建되었다가 戊辰年(高宗 一八六八年) 火災에 大雄殿 및 金銅佛三尊과 羅漢殿 毘盧殿 善德廟等이 燒失되었으므로 그

後 己巳年 火災 庚午年 水害에도 많은 被害를 입었다고 한다(洞民 吳載 媛氏談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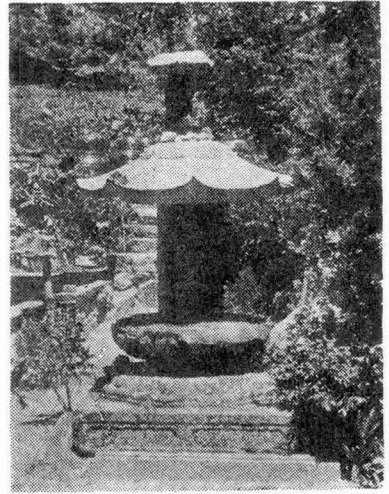
寺刹 規模는 榮州 浮石寺와 같이 階段式으로 層階를 이룬 곳마다 雄대한 石築을 築造하였는데 數層의 段階를 오르면 正南한 大雄殿前庭에 東·西塔 二基와 缺損된 石燈 및 拜禮石이 各一基 遺存한다. 現存遺物 및 遺蹟으로 보아 創建當初에는 이 洞口一帶를 차지하는 巨刹이었음이 分明하다. 寺址는 田畝으로 化하였으나 無數한 瓦片과 石物斷片이 着眼되었다. 거의 廢寺에 가까운 오늘날의 符仁寺에는 土地 林野等 財産이 全無하여 維持가 至難하며 老比丘尼 三名이 있을 뿐 人跡도 드물다 한다.

一、東西 三層石塔
法堂前庭 東西에 新羅式一般型의 三層石塔 兩基가 遺存하여 雙塔式伽藍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此塔은 原位置이며 二塔이 同一規模인 바 東塔(圖版)은 初層屋蓋石까지 西塔은 二層屋身까지 殘存하였다. 그 中西塔이 比較的 完全하기에 그 樣式 手法을 略記 하려한다.



符仁寺 東三層石塔

二層基壇인 바 上下高는 一六·五cm 對 六六cm로서 顯著한 差異를 보인다. 下基一邊 二四〇cm의 面石은 二撐柱로 三柱를 이루었으며 兩端은 幅二三cm의 隅柱로 四面이 거의 同一하다. 一邊長二四九cm의 下臺甲石 위에는 角과 四分圓의 「물당」이 있고 그 위에 高六六cm 幅一五九cm의 上層基壇面石을 받고 있다. 上基의 面石은 幅一九·五cm의 一撐柱로 面石을 兩分하였다(區幅 五一cm, 兩端의 隅柱幅 一八·五cm). 上甲石은(長 一八四cm, 厚 一一cm) 副緣(厚 四·五cm, 幅 八·五cm)이 있고 그 甲石 위에는 高一一cm, 幅九·四cm와 八·六cm의 角形二段의 屋身과 隅이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屋身의 高六七cm 幅七九·五cm, 兩端隅柱幅一九cm이며 初層屋蓋는 下段屋石받침長 一八六cm, 屋蓋落水面추너 長 一三七cm, 厚七cm, 轉角一三cm로 屋石받침은 五段이다(各層 받침은 모두 五段). 二段의 屋身과 隅(高 一·五cm, 幅二cm 三cm) 위에 二層屋身이 있고(高 一·五·五cm 幅六·二cm, 兩隅柱幅 一三cm) 그 以上은 缺落되어 있다. 三層屋蓋石은 바로 塔 基壇部에 殘存하였는데(추너長 一一六cm 轉角六·五cm) 그 上面에는 直徑一五cm의 擦柱圓孔이 있으며 下層基壇 西便面石下部에 다시 撐柱(幅 一九cm, 高 一七cm) 二柱로 三區(一區幅五



符仁寺 石燈

五·五cm)를 이룬基壇面石이 埋沒되어 있어 注目되었다. 塔의 基壇 및 屋蓋等의 手法으로 보아 創建當時의 塔으로 新羅末期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는 바 境內에 散在하는 部分石(材屋蓋, 基壇部等)로서 復元이 可能할

것임에 當局의 施策을 期待하는 바이다.

二、拜禮石 및 石燈

法堂前庭中央에 拜禮石 一基와 缺損된 石燈 一基가 遺存한다. 原位置로 보이는 拜禮石은 花崗岩 一石으로 他例와 四面을 蓮瓣紋으로 돌린 것이 特異點이라 하겠는데 上面 蓮花紋의 手法과 더불어 石塔과 同代作으로 推定되었다.

石燈은 火舍石 및 相輪이 缺損되었으며 現位置로 移動된 듯하다. 方形 一石의 地臺石 위에 다시 方形의 下臺石을 받고 있는데 (一邊長 一一·九cm, 高 一一·三cm) 側面에는 二區의 眼象이 있고 그 위에 八瓣覆蓮座가 彫刻되었다. 上臺石 또한 八瓣仰蓮의 一石인데 그 上面에는 火舍石 받침이 八角四段을 이루었다. 八角竿柱의 高는 七六cm, 一邊幅은 一六·五cm이다. 屋蓋는 近年 下水道工事中 拜禮石으로부터 北方 四m地點에서 發掘된 것인 바 屋蓋받침은 三段을 이루었고 各面마다 隅棟形을 이루었으며 頂上에는 蓮花文이 彫려 있다. 相輪部는 缺失되고 屋蓋上에는 一彫刻石이 있어 注目되었다. 火舍石은 앞으로 調査復元되어야 할 것인 바 이 石燈은 眼象 蓮瓣 等の 纖細하고 부드러운 手法으로 보아 塔과 同代로 推定되었다.

三、其他

寺域內 石壇 위에는 羅代의 礎石 등이 많이 殘存하며 石築이나 建物前庭에서는 塔石 및 石燈臺石이 散見되었고 特히 東方約三百米 相距에는 金堂址 或은 極樂殿址라 傳稱되는 二建物址가 있어 石燈臺石과 塔材가 露出되어 있었다. 또 寺址西方約一〇〇米 松林中에 浮屠群이 있다. 木造建物로는 近年 建立한 寮舍 三棟과 重修中인 大雄殿과 善德廟(註)가 있을 뿐이다. 寺址의 規模와 現存遺物의 重要性에 비추어 本調査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現狀에 對한 간략한 踏查(메모)를 記錄하는 바이다.

註: 符仁寺를 또는 「夫人寺」라 하는데 善德女王의 初創中이라 傳하며 이 洞里도 「夫人洞」이라 부른다. 「夫人」이라 함에서 比丘尼들만이 住錫하였다고도 한다. 善德廟에는 女王의 影頰과 그 臣下 群像圖를 奉安하였는데 約五十年前에 建立이라 한다.

中原郡 倉東里 五層石塔에 對하여

鄭 明 鎬

忠州市에서 西北方 約四km 俗稱 中央塔 (塔亭里七層塔 國寶第二七號)으로 向하는 道路邊 民家內(中原郡 可金 倉東里部落 金英基)에 石塔 一基가 있어 일찍이 注目된 바 없으므로 簡略히 紹介하고자 한다.

花崗岩方形의 五層石塔으로써 二層基壇 위에 建立되어 있으며 一部の 破傷



倉東里 五層石塔